광주 교육의 슬픈 자화상

학생들에 감금당한 교장

인화학교, 16명에 밀가루·달걀 세례

등교 재개 첫날 '반성문 요구' 소문에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이 50대 여교장을 사실상 '감금'해놓고 밀가루와 달걀, 물감 세례를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교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인화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이 학교 중등부 남·여학생 16명이 교장실에 난입, 문을 잠근 뒤 혼자 집무 중이던 이모(여·54) 교장에게 밀가루와 달걀, 빨간 물감을 던졌다.

소란이 일자 교장실 옆에 근무하고 있던 행정실 직원이 교장실로 뛰쳐 갔으나 교장실 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어, 행정실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폭력사태'는 이미 끝난 후였고,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최근 60여 일 동안 등교거부와 천막수업을 벌인 이들 학생들은 등교 재개 첫날인 이날 이 교장이 반성문을 요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교실에서 회의를 하다 갑자기 교장실로 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또 이 교장이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거짓말하는 피노키오'에 비유하며 무시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학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은 현재 정상 수업 중이며, 학교 측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학교 모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모든 교사가 충격에 빠져 있다"며 "명분이 어찌 됐건 학생들이 교장을 집단 폭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광주 광산경찰에 김모(17)군 등 당시 교장실에 난입한 16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일부 교직원의 장애학생 성폭력으로 인해 촉발된 인화학교 분쟁은 이후 법인 이사진과 학교장에 대한 신임문제로 또다시 내분을 겪어 오다 지난달 25일 시교육청과 대책위가 인화학교 내실화를 골자로 한 6개 합의조항에 서명하면서 학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

학부모에 폭행당한 교사

모 중학교, 동료 교사들 앞에서 봉변

학내 폭력 딸 '선도위 회부'에 앙심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과 동료교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가 여교사를 폭행,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해당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광주시 북구 W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이 학교 교장실에서 학부모 A씨가 1학년 딸(14)의 담임을 맡고 있는 B교사를 폭행했다. 당시 교장실에는 A씨의 남편과 교장, 교감, 학생부장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학내 폭력과 금품 갈취 등으로 교내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B교사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 교장이 중재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B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당시 학교 측에 "담임이 우리 아이를 미워해 사고뭉치로 몰아 세웠다"며 "돈을 빌린 것을 두고도 금품 갈취로 내몰고 있어 참다 못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교사는 "피해 학생이 3만여원을 빼앗겼다며 학생지도부에 신고해와 수차례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결국 선도위원회에 넘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이번 폭행 사건으로 모든 교사들이 상처를 입은 만큼 A씨가 전체 교직원 앞에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는 사과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사고 당일 해당 학교에 장학사 등을 파견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B교사의 의사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이전식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서부경찰서로 이사를 했다. 전남청은 이날 현판 제막식 및 이전식 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 음악회'를 갖고 대민친절 봉사를 다짐했다. 전남청은 현재 부지 확보에 나선 신청사 건립공사가 끝날 때까지 옛 서부경찰서 건물을 5~6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하게 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청소년들 인터넷 카페서 주민증·운전면허증 위조

북부경찰 1명 적발

청소년들이 공·사문서 위조 카페를 통해 각종 신분증을 구입,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본보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판매하는 카페가 10여곳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카페는 '일상 생활에 불편 없는 신분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3D홀로그램의 2중 특수막으로 인해 불심검문 시에도 적발될 염려가 없습니다'는 등의 광고 문구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발급 신청은 이메일로 받으며, 발송 기간은 1~3일 걸린다. 위조 증명서 발급 대금은 건 당 ▲타인 명의 통장 개설 10만원 ▲주민등록증 80만원 ▲운전면허증 140만원 ▲여권 250만~350만원 등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L통신회사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최모(18·광주 J공고 1년 중퇴) 군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해 8월 광산구 비아동 모 PC방에서 모 포털사이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카페에 접속, 위조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북부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담배와 술을 사고 성인 인증이 필요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노래방 업주 협박 40대 1년6월 실형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31일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공갈한(상습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 대해 "업주들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약점을 노린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남구 월산동 W노래방 등 14곳의 노래방을 돌며 손님인 척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해도 되느냐.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로부터 모두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장도 전화사기 당했다

"아들 납치" 협박에 6천만원 송금

경남지역 한 법원장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6천만원을 뜯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자택에 머물던 지방의 한 법원장이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통해 "아들이 납치됐으니 살리고 싶으면 5천만원을 송금하라"는 한 남자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이 법원장은 곧바로 아들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아들이 실제 납치된 것으로 여기고 범인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다.

법원장은 송금 후 범인의 계좌번호와 협박내용 등을 검찰에 알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범인은 또다시 "5천만원을 추가로 송금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법원장은 1천만원만 송금한 뒤 시간을 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법원장이 전화사기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가슴속에 나라사랑 생활속에 보훈사랑

나원참 〈7224〉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쌍나팔

금품 턴 현장에 컴퓨터 켜 놔 덜미

○…교회와 독서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10대가 범행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뒤 켜놓는 바람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서모(18·J고 1년 중퇴) 군은 지난 7일 밤 11시30분께 북구 중흥동 E교회 사무실에 몰래 침입,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 중순부터 8회에 걸쳐 시내 교회와 독서실 등을 돌며 2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서군은 E교회에서 컴퓨터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도주했으나, 켜진 컴퓨터의 접속 사이트와 아이디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검거.

○…하지만 E교회 박모(39) 목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